

광주시장,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면담… 피해복구 등 논의

정일택 대표 “18일 대주주와 논의… 공장 이전 해법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경영진을 면담하고 신속한 화재 복구와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강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군택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를 방문해 정일택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났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지역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금호타이어의 새공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고용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복구 및 공장 이전 준비 등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금호타이어 경영진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화재 피해 설비 복구 일정, 공장 재가동을 위한 조건, 휴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방안, 공장 이전 계획과 부지 용도변경 등 주요 사안



강기정광주시장, 박군택의원서울 금호타이어본사방문해 정일택대표이사 등경영진면담. 사진=광주시청제공

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대표이사는 “18일 중국 칭다오에 위치한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해 금호타이어 대주주 측과 ‘화재피해 복구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뒤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역민 염원과 애정을 잘 알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줄곧 밝혀준 데다 회사 발전방향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자세로 공장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내달 초 발표하기로 한 로드맵에 새공장 건립 계획을 분명히 밝힐 경우 광주시, 국회,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이전지원단’(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금호타이어 광주 2공장에서는 대형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과 소방대원 2명 등 3명이 다쳤다. 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광주전역으로 퍼져 주민들이 긴급대피했으며 공장 가동이 멈춰 근로자 2300여명의 생계를 비롯해 오염수가 황룡강으로 흘러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오권철 기자

“비상장 주식으로 고수익” 10억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검거

금융위 인가 없는 투자업체, ‘깡통’ 비상장 주식 무작위 판매

실제 값어치가 없는 비상장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판매해 1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로 골센터 운영자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인가 없는 금융투자업체를 차려 고객

26명에게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조직적인 전화 상담(텔레마케팅·TM)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럴싸한 명함까지 만들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처음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

상장 주식을 대리 매수했고, 이에 신뢰를 얻은 피해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는 ‘깡통’ 비상장 주식 매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주범 격인 3명을 구속하고, TM상담원 노릇을 한 조직원 3명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A씨 일당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2억 54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휴대전화 전자 법의학 감정(포렌식)을 통해 여죄 수사로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공범들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조력자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며 “최근 사기범들이 ‘미끼음’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고 수익도 일부 보장하고 있다. 인가 받은 회사 명의로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는 이제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정원 변동 없이 기존 6국·2실·2관·29과·123팀 체계를 6국·2실·2관·30과·124팀으로 개편한다.

남구는 희망복지지구 내 통합돌봄과와 돌봄정책팀을 신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

광주 남구 조직 개편 “국정 연계… 통합 돌봄 강화”

6국·2실·2관·29과·123팀, 6국·2실·2관·30과·124팀으로

역 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한 법률에 맞춘다. 신설 과를 통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가내 의료·돌봄서비스를 대표로 하는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한 새 정부 공약에 따라 기존 열린행복과를 민주평화인권과로 개편한다.

총무과 소속인 남북교류협력팀을 민주

평화인권과 산하로 옮겨 남북 교류 활성화·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지자체의 역할을 더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인력 증원 없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각종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조직으로 개편했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주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서 사건·사고 가장 많은 지구대 ‘상무지구대’

지난 한해 지구대·파출소 29곳·15만여건 신고 접수
상무지구대 2만4773건… 우산지구대도 2만1374건
‘최다 신고 TOP5’ 지구대에 67%… 서·북·광산서 편중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 지역 지구대·파출소에 접수된 사건·사고 신고 15만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도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만 신고 2만477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 광주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 29곳에 접수된 신고 출동 건수는 총 15만74건이다.

이 중 단일 지구대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부서 상무지구대 2만477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16.5%를 차지했다.

이어 북부서 우산지구대 2만1374건(14.24%), 광산서 수완지구대 2만985건(13.9%), 광산서 첨단지구대 1만7358건(11.56%), 서부서 화정지구대 1만6400건(10.9%) 순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구대는 전체 신고 건수의 67%를 차지한다. 동부·남부서 관할 지구대는 신고 건수 상위권에 1곳도 들지 않았다.

상무지구대의 경우, 광주 내 주요 상권 중에서도 매출액 규모가 가장 높은 정도로 대표적인 지역 변화가다. 술집과 식당, 유흥가가 즐비한 만큼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 다양한 사건·

사고 발생이 잦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부서 우산지구대는 말바우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주거 지역이 혼재해 있고, 2023년 9월 역전지구대와 통합하면서 관할 지역이 넓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광산서 수완지구대와 첨단지구대 관할 지역 역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유흥 상권과 산업단지가 있어 상주·유동인구가 많아 신고 출동이 많다. 제2순환도로 진·출입로와 임방울대로, 하남로, 호남 고속도로가 만나는 관문이어서 교통사고 발생량도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서부서 화정지구대는 상업·주거 혼합 지역, 상권 활성화, 교통 요충지라는 점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부서에서는 금남지구대가 1만3951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다. 남부서의 경우, 백운지구대가 1만1588건으로 가장 바쁜 지역 경찰관서로 뽑혔다.

동부서와 남부서 모두 최근 상권 침체 현상과 인구 감소 등 이유로 다른 경찰서 대비 신고 출동 건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전민규 기자

‘사람 중심 도시환경’ 광주시, 대자보 도시 시민포럼

20일 시청 중회의실서… 김승수 전 전주시장, 전주시 정책 소개

광주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승용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모색하는 제4차 대자보 도시 시민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교통공사,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광주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주시 사례를 통해 광주의 차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길 추진 방향과 해법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이 ‘걷고 싶은 도시는 어떻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간 전주시장을 역임하며 걷고 싶은 도시 정책을 역점 추진했다. 김 전 시장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등 전주시 사례를 중심

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홍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대자보 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이에 맞춰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하고 광주공원 주차장을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바꾼 청춘 빛포차 광장을 조성했다.

또 금남로 차 없는 거리도 매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금남로, 풍암동 소통데마길, 백운광장 토요일시장, 전남대 후문 대학교, 1913송정역시장 등이다.

광주시는 주민 참여와 합의를 통해 자치구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원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